

도시 산책자와 시선 표상의 의미양상

- 이문재 · 유하 · 고진하의 시를 중심으로 -

김홍진(한남대)*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신성의 부재와 종교적 영성의 시선 : |
| 2. 문명의 속도와 저항적 성찰의 시선 : 이문재 | 고진하 |
| 3. 욕망의 풍경과 고현학적 관음의 시선 : 유하 | 5. 맺음말 |

1. 머리말

도시는 현대인의 보편적인 삶의 공간이다. 현대인의 삶의 양식과 의식을 결정하는 물질적 토대로서 도시는 중요한 문학적 관심사의 하나이다. 한국문학은 도시공간과 삶에 대해 고민한 문학적 적층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중요한 시적 사유 대상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터 벤야민은 현대사회에서 시인의 운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관점으로 ‘산책자’(flaneur)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도시의 거리를 근대적 삶의 상징으로 간주한 벤야민은 대도시의 군중이라는 현상과 거리의 다양한 자극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산책자의 양가적 시선에 주목한다.¹⁾ 도시공간의 관찰자이자 탐

* 이 논문은 2014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하권, 국학자료원, 2006, 128면 참고.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164면 참고.

정으로서 산책자는 거리의 기호와 욕망, 이미지와 풍경에 도취되는 사이면서 동시에 이로부터 세속적 깨달음을 얻는 반성적 자아이다. 이를테면 산책자는 기호가치의 상징적 교환이라는 메커니즘의 내적 논리를 반성적으로 깨닫고 도시적 풍경의 매혹과 도취에서 깨어나는 양가적인 존재이다.

본고는 이문재·유하·고진하의 시를 중심으로 산책자의 도시 표상화가 어떤 시선체계를 통해 구축되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이들 세 시인은 뚜렷하게 도시 내지는 도시체험을 지속적으로 다루었으며, 공히 도시 산책자의 시선의 고현학(考現學)적 태도가 시적 발상을 규율한다. 도시의 “산책자는 무엇보다 시각적 패러다임 속에서 사유하는 <보는 자>”²⁾이다. 세 시인의 시에서 시적 자아에게 견자(見者)로서의 ‘본다’는 행위는 그들이 세상에 참여하고 세계를 해석하며 타자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견자로서 시선의 동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물론 도시의 거리이다. 이들 거리의 산책자는 단순히 풍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시선의 프레임 안에서 세계와 자신을 재인식하는 존재가 된다. 이들의 시에서 산책의 모티프와 시선의 발생은 그들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미학적 지점을 이룬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세 시인은 도시 산책자의 시선 표상의 의미양상을 살피려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한다.

본고가 채택한 관점은 도시공간을 ‘시각적 패러다임’³⁾ 속에서 사유하는 산책자의 투시적 상상력을 주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 시인은 시각적 패러다임 속에서 거리를 산책하면서 도시공간을 투시하고 관찰한다. 이문재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도시 산책자임을 자임하면서 탈근대적 자본주의의 모순을 뼈아프게 각성”⁴⁾하는 시인이며, 유하는 “거대한 문화적 텍스트”이며 “풍속사적 상징”⁵⁾인 거리의 관능을 흠쳐보는 산책자이고, 고진하는 “묵시록적 미학을 밀고 나가면서 도시 체험을 시화”⁶⁾하는 전형적인 산책자의 시선을 보

2) 이광호, 『세속 세계의 산책』, 『환멸의 신화』, 민음사, 1995, 144면.

3) 루돌프 아른하임,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화여대출판부, 1982, 32면 참조.

4) 김홍진, 『탈근대 문명과 산책자의 대항적 사유』, 『현대시와 도시체험의 미적 근대성』, 푸른사상, 2009, 131면.

5) 권성우, 『압구정동의 유하 형제 보내는 서신』, 『비평의 매혹』, 문학과지성사, 1993, 217면.

6) 이광호, 『세속 세계의 산책』, 『환멸의 신화』, 민음사, 1995, 149면.

여준다. 이들은 도시적 삶과 정치·경제·문화적 논리를 고현학의 시선으로 응시하고 관찰함으로써 현대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식하고 표상화한다. 도시의 표상화는 도시적 시선의 고현학이 품은 정치성과 윤리성이 내재한다. 이를테면 도시는 단지 소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적 시선의 감각과 고현학이 지닌 정치성 내지는 윤리성을 드러내는 문제적인 지점을 형성한다.

도시적 삶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과 풍속사적 상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도시는 단지 장소나 공간을 구성하는 스펙터클한 풍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며, 여기에는 도시적인 삶의 형성과 “이미지, 스타일, 취향, 아비투스 등의 삶의 실천적·미학적 문제”⁷⁾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사에서 도시 산책자의 도시 표상화가 어떤 시선 체계를 통해 구축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흥미로운 일이다. 현대성의 문제를 태도, 시선체계, 혹은 표상공간의 문제로 집중할 때 ‘태도란 동시대의 현실에 관계되어 있는 어떤 양식, 감각하는 방식을 의미’⁸⁾한다. 현대성의 문제가 태도와 관련된 문제라면, 이것은 현대적인 공간에 대한 현대적인 시선체계의 문제와 연관된다. 따라서 산책자의 “도시에 대한 표상과 시선의 문제”는 “프레임 혹은 전시방식의 체계와 그 안에 작동하는 권력과 사회 역사적 관계를 분석하는 시선의 정치학”⁹⁾과 윤리학을 요구한다.

결국 도시를 일종의 표상체계로 본다면 중요한 것은 도시의 이미지 내지는 표상을 구축하는 시선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고는 세 시인의 사례를 통해서 도시라는 공간을 탐구하는 고현학적 시선의 표상화가 지닌 정치성과 윤리성의 일부를 드러내려는 작업의 일환이다. 여기에서 미학적 문제의 핵심은 도시 공간에서 다른 감각의 발견, 다른 삶의 가능성을 문학적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본고가 선택한 시인들의 시가 문제적인 것은 도시 산책자의 감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며, 그것은 현대시가 보여주는 정치성과 윤리성의 의미 있는 한 국면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도시 산책자의 시선이 보

7) 이광호, 『김수영 시에 나타난 도시적 시선의 문제』, 『어문논집』 제60집, 민족어문학회, 2009, 10, 379면.

8) 미셸 푸코, 『계몽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31-352면 참조.

9) 이광호, 『시선과 관음증의 정치학』,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 문학과지성사, 2006, 31면.

여주는 정치성과 윤리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양상을 조명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시가 보여주는 문학적 증상이 어떠한 사회·문화·문명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문명의 속도와 저항적 성찰의 시선 : 이문재

이문재의 시에서 도시의 거리는 산책자의 시선의 동력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그는 도시적 풍경을 단순히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시선의 프레임 안에서 도시라는 세속세계와 거기에 위치한 자신의 실존을 재인식하고 대안적 미래를 꿈꾸는 저항적 존재이다. 그의 시에서 도시는 매혹과 환멸, 풍요와 죽음이 뒤섞인 공간으로 속도와 기호 이미지가 지배하는 ‘제국호텔’로 상징된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도시의 표상과 이미지를 바라보는 산책자로서 화자의 시선이다. 도시 거리의 익명의 군중은 도시적 제도와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며 기계적으로 걸어 다니는 자기 소외적인 존재이다. 이와는 반대로 반성적 사유가 가능한 이문재의 산책자는 도시적 일상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공간을 목적 없이 느리게 배회함으로써 대중의 모순과 소외, ‘제국호텔’로 은유된 도시를 저항적 시선으로 성찰하는 각성된 주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문재의 시에서 산책자의 시선의 동력이 발생하는 도시의 거리는 속도가 지배하며, 속도는 도시의 운명이자 도시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미덕이다. 때문에 속도에 저항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부도덕하며 “가장 큰 죄인”(『마지막 느낌보-散策詩 3』)으로 몰린다. 이러한 문명의 도시적 현실에서 이문재는 ‘빠름’이 아닌 ‘느림의 미학’, 말하자면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하는 “발효의 시간”(『푸른 곶팡이-散策詩』)처럼 느릿한 속도로 도시의 속도에 저항한다. 그의 시에서 도시의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거니는 산책은 도시의 속도와 문명의 논리에 저항하는 방식이다. 『산책시』 연작은 도시 산책자의 시선이 응시하는 지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도시는 느슨한 산책을 아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산책은 아니/산책만이
두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비밀을/이 도시는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도시는 사람

들에게 들키고 싶어하지/않는다고 하더군요 저 반짝이는/유토피아에의 초대장
 들로 길 안팎에서/산책을 휘방하는 것이지요//도시는 단 한 사람의 산책자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느낌보는/가장 큰 죄인으로 몰립니다/계으름을 피우
 거나 혼자 있으려 하다가/도시에게 당하고 말지요/이 도시는 산책의 거대한
 묘지입니다 (『마지막 느낌보-散策詩 3』 중에서)

이문제의 시에서 산책은 빠른 속도의 도회지 거리에서 이루어지며, 그곳은 화자가 처해 있는 실존적 상황을 규정한다. 도시는 효율적 생산성의 가치와 속도의 신화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느슨한 산책을 싫어”한다. 해찰을 떨거나 계으름을 피우는 “느슨한 산책”은 도시의 생태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에게 산책은 이러한 도시의 신화를 거부하고 “두 눈과 귀를 열어”주는 행위로서 이문제 시의 저항적 시선의 정치성이 탄생하는 자리이다. 말하자면 도시 문명과 자본의 권력에 대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각성과 비판적 고현학의 시선이 자연, 생명, 생태, 느낌의 문화 따위의 공적인 담론으로 확대하면서 이문제의 시는 생태학적 생명과 느낌의 문화를 욕망하는 저항적 시선의 주체가 된다.

산책은 도시적 삶이 제시하는 속도와 “유토피아에의 초대장”이라는 물질적 풍요의 환상에 대해 뚜렷한 대립적 의미를 지닌다. “산책의 거대한 묘지”라는 진술에서처럼 도시적 삶에 대한 산책자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그는 “도시-자본주의-근대의 사생아”¹⁰⁾로서 도시와 심각한 불화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시에서 산책의 느낌만이 속도에 대한 대항적 사유의 형식을 확보해낼 수 있음을 환기한다. 인용 시를 비롯한 『산책시』 연작과 여타의 많은 작품에서 화자는 문명의 속도를 거스르는 산책자로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시선과 어법으로 산책의 의미를 진술하면서 도시가 감추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수행한다. 산책자는 도시의 “마지막 느낌보”임을 자처하면서 “빠른 것은 부도덕”(『타클라마칸-부사성 5』)하다는 시적 명제를 사유의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걷는다.¹¹⁾

10) 이문제, 『시인이 쓰는 시 이야기-미래와의 불화』, 『마음의 오지』 후기, 문학동네, 1999, 22면.
 11) 이문제의 시에서 산책자의 ‘걷는다’는 행위는 시적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테마이다. ‘도보고행승’이나 ‘방랑자’, 그리고 ‘산책’의 걷는 행위가 그렇다. 이때 산책은 도시문명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선과 인식 태도를 반영하며, 동시에 생명과의 길을 트기 위한

깜빡이는 것들은, 위험하다/엘리베이터 표시등, 병원 약국의 번호판/횡단보도 신호등, 카드공중전화의/액정화면, 컴퓨터의 커서……/이것들은 무시로 깜빡거리며/기다림, 기다림인 것을 변질시켜 버린다/그 짧은 순간들을 참을 수 없는 /무거움, 강박으로 바꾸어버린다(『저 깜빡이는 것들-散策詩 5』 중에서)

산책이라는 가벼운 행위가 절박한 저항적 사유로 전환되는 요인은 도시의 속도 때문이다. 화자의 시선에는 도시문명의 속도에 대한 깊은 위기감과 절망감이 내재해 있다. 산책의 화자가 도시의 거리에서 목격하는 것은 “무시로 깜빡거리”는 현란하고 풍요로운 기호들과 이미지들이다. 그러나 도시의 산책자는 여기에서 문명의 풍요와 편리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폭력과 죽음의 징후를 본다. 도시공간에 편재하면서 “무시로 깜빡거리”는 것들은 ‘기다림’을 “무거움, 강박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안락과 풍요, 편리와 질서의 기호들인 “깜빡이는 것들은, 위험”하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도시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인식된다. 이 ‘고독한 산책자’는 깜빡거리는 것들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며, 조작되고 왜곡되는 도시적 일상의 본질에 대해 세밀하게 관찰하는 고현학의 시선을 갖는다.

이문제의 시에서 저항적 주체로서의 산책자는 생명이라는 큰 이름으로 세계를 주시하는 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시선의 정치성과 윤리성을 결성한다. 이 저항적 시선의 산책자는 도시의 내부에 속해 있지만 거리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또 거리의 균중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소외된 관찰자의 시선을 통해 도시의 내부를 탐색한다. 도시의 ‘빠름’에 산책의 ‘느림’이라는 프레임으로 도시공간을 응시하는 시적 자아는 도시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 그 내부의 외관이 감추고 있는 본질을 응시한다. 속도에 저항하고 위반하는 이러한 산책자의 의식화된 시선은 도시가 감추고 싶은 환부를 냉정한 투시를 통해 관찰한다. 산책자의 시선은 도시의 물질적 풍요와 현란한 이미지가 감추고 있는 미시권력의 은밀한 작동을 엿보고 비판적이며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각성된 화자이다.

광고의 아우성과 매체의 잠음 속에서 광고의 잠음과 매체의 아우성으로 나온

모색이고, 인간의 감성적 인식을 복원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다, 저, 아니, 이 길뿐, 빈틈은 없다, 내 시야와 시력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하니/내 눈이 보고 싶던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중략… 시선이 떠나가 돌아오질 않는다, 서울은 캄캄할 만큼 현란하고 현기증으로 증발할 만큼 무섭게 돌아간다, 즐겁다고, 쫓아가고 싶다고, 누릴 수 있다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타워 크레인-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중에서)

이문제의 시편을 관통하는 주된 시적 발상법은 도시가 인간에게 가하는 보이지 않는 억압과 폭력을 주시하는 것이다. 각종 ‘매체’와 ‘광고’, ‘전광판’과 ‘네트워크’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도시의 삶과 일상의 욕망을 관리하고 지배한다. 그것들은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교묘하게 조종”¹²⁾한다. 깜빡거리는 도시의 ‘전광판’은 하나의 권력으로 도시의 정보와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주입시키며 “도시인 것을 조종한다”(『저 깜빡이는 것들』). 말하자면 전광판이나 기호가 지시하는 길을 따라 일상의 군중들은 움직인다. 도시의 불빛은 “캄캄할 만큼 현란하고 현기증으로 증발할 만큼 무섭게 돌아”가는 것이어서 “즐겁다고, 쫓아가고 싶다고, 누릴 수 있다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줄 만큼 매혹적이다. 그 결과 “광고의 아우성과 매체의 잡음”으로 인해 화자의 “시야와 시력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며, “내 눈이 보고 싶던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 형국이다. “광고의 아우성과 매체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선이 떠나가 돌아오질 않”는 화자의 모습이야말로 도시 군중의 극단적인 초상을 환기한다. 산책자의 시선은 조작되고 왜곡된 욕망에 의해 인간이 몰주체적 존재로 전락하게 된 상황을 고통스럽게 투시하는 것이다.

도시의 산책은 물론 진정한 산책은 아니다. 산책자의 진정한 꿈은 “도처의 전원을 꿰고”(『도보순례』) “언제나 맨 처음의 문으로 열리는” 곳, “술길 저마다의 굽이들이 나를 기다”리는 곳으로의 산책이다. 그러나 “산책의 묘지”에서 “산책로 밖으로 나아가려는”(『산책로 밖의 산책-散策詩 8』)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산책의 진정한 의미이면서 동시에 도시문명의 속도에 저항하면서 본래적인 자아를 찾으

12) H.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한마음사, 2006, 19-76면 참조.

려는 눈물겨운 싸움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시 산책자는 지금 이곳으로부터의 탈주를 욕망할 수밖에 없다. 탈주의 욕망은 도시적 실존의 부정성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도시적 삶의 내부는 물론 자기 자신의 황폐성과 불모성을 치유하기 위한 탐색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산책의 화자가 마침내 도달한 곳은 도시의 균중과 자신을 격리시키는 성찰과 각성을 통과해 대안적 세계를 발견하는 윤리적 지점이다.

산책자의 시선이 도시의 거리에서 흡수하는 것은 현란한 기호와 이미지들이다. 현란한 기호와 이미지는 산책자로 하여금 다른 공간과 시간을 상상하게 만든다. 속도가 지배하며 스펙터클한 이미지가 출렁이는 도회의 한복판에서 지금 이곳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을 상상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의 움직임은 이문재 시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를테면 대도시의 거리를 거닐며 과거와 현재를 응시하고 대조하며, 그 대안적 지점을 도시문명과 ‘제국호텔’의 대척점에 위치한 ‘농업’에 바탕을 둔 ‘오래된 미래’를 설정하는 방식이나, ‘오지’나 ‘극지’의 원형적 생명을 지향하는 태도가 그러하다.¹³⁾ 산책자의 상상적 시선이 응축하는 과거의 농업에 토대를 둔 ‘오래된 미래’가 문제적인 것은 도시의 피안을 은유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류문명이 지향해야 할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지점이 이문재의 시에서 산책자가 도시의 균중과 자신을 분리하는 성찰적 시선이 탄생하는 자리이며, 산책의 저항적 정치성과 윤리성을 획득하는 자리이다. 말하자면 도시 내에 속해 있지만 중심에서 벗어난 국외자로서 도시에 대한 고현학의 비판적 관찰의 자세를 취하던 산책자의 시선은 도시 밖에서 혹은 지금이 아닌 과거의 시간과 공간에서 미래적 대안을 찾는 발견의 시선으로 이동한다.

이문재의 시에서 산책자는 도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시선의 위치를 거리의 속도에 비켜선 소외된 국외자로 설정한다. 그럼으로써 도시문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저항적 시선의 주체가 된다. 도시의 중심에서 비켜서서 도시의 본질을 고현학의 관찰자적 태도로 탐구하면서 도시의 외부로 응시하는 시선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국외자로서의 시선은 도시의 외부에서 새로

13) 이러한 시적 발상과 태도는 시집 『마음의 오지』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시집의 후기 『미래와의 불화』에는 ‘농업(흙)에 바탕을 둔 ‘오래된 미래’, ‘지나간 미래’에 대한 시적 사유의 극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은 생명의 윤리를 찾아내는 발견의 시선으로 움직인다. 이 시선의 윤리는 도시 내부에서 현대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을 동시에 포착하는 ‘겹시선’의 지점에 도달한다. 이를테면 도시 내부에서 도시문명과 자본권력을 비판적으로 관찰하면서 도시 외부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는 이중적 시선의 지점에 도달한다. 이는 곧 도시적 표상에 대해 비판적인 고현학의 관찰과 탐구의 시선으로부터 도시 밖을 응시하며 대안을 꿈꾸는 상상적 시선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빼앗긴 것을 찾을 수/있을까 도시에서 밀려나오는 길/길어질수록 치욕만 는다/
눈 감으면 더욱 새파랗게 빛나는 길(『길』 중에서)

농업박물관에 전시된 우리 밭/우리 밭, 내가 지나온 시절/똥집 지던 그 시절이/
미래가 되고 말았다/우리 밭, 아 오래된 미래(『농업박물관 소식-우리 밭 어린
싹』 중에서)

변잡한 거리에서 산책자의 상상적 시선의 동력은 도시 밖 자연의 생명을 감각하는 지점에 이른다. 이 지점이 바로 이문재의 시에서 도시 산책자 혹은 도시 고현학의 윤리가 발견되는 지점이다. 말하자면 비판적 관찰의 대상으로서 거리와 균중을 파악하는 시선은 도시 밖에서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변용되면서 산책의 궁극적 윤리가 발현한다. 산책자는 훼손된 생명성을 ‘몸’과 ‘땅’, 그리고 ‘농업’의 은유를 통해 회복하려 한다. 산책자는 문명으로부터 탈주하여 “빼앗긴 것”으로 대변되는 잃어버린 길 찾기를 시도하는데, 그것은 원형적 생명의 길 찾기라 할 수 있다. 도시문명에 의해 빼앗긴 것, 즉 “눈 감으면 더욱 새파랗게 빛나는 길”로 상징되는 원형적 생명은 산책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지점인 것이다.

이문재 시의 산책자에게 도시의 현실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부정성의 기호이다. 그러므로 ‘속도’나 ‘제국호텔’로 상징되는 도시를 산책하는 일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도시적 삶과 세계의 불모성을 치유하기 위한 탐색의 방식이다. 따라서 도시의 내부에 속해 있지만 소외되고 고립된 한국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은 상실한 본래적 원형의 ‘몸(땅)’을 회복하기

위한 길 찾기이다. 이러한 태도는 “몸 속으로 땅이 들어”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부처”(『이 땅이 부처다』)라는 전일적 세계관과 생태학적 사유에 잘 나타난다. 도시의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도 외부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저항적 시선의 관찰자적 자세를 취하는 산책자의 시선은 도시 밖에서 대안을 찾는 발견의 시선으로 이동한 결과이다. 이것은 도시 외부의 관찰자적 시선으로부터 도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내재적 성찰의 시선에 이르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문재의 도시 산책자는 상실한 세계의 원형적 질서 회복을 위해 느림으로 대응하면서, 이성에 의해 상실한 ‘몸(땅)’의 원형적 생태성과 상실한 세계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농업’의 회복을 꿈꾼다. ‘몸(땅)’과 ‘농업’에 대한 사유는 그의 시의 주제를 규제하는 정신적이며 전략적인 국면의 하나이다. 이때 ‘몸’은 자연으로서의 흙을 상징하며, 같은 의미에서 미래의 문명이 농업에 토대를 둔 것이라면, 그 문명은 ‘흙’의 생명성을 바탕으로 한 문명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래된 미래’이며 ‘지나간 미래’로서 이문재의 도시 산책자가 보여주는 저항적 시선의 윤리성이다.

3. 욕망의 풍경과 고현학적 관음의 시선 : 유하

매혹적인 상품의 이미지와 기호가치가 지배하는 도시의 산책자임을 자임 하면서 현란한 소비 도시의 풍경을 관음적 시선으로 훑쳐보며 현대적 풍속을 탐구하는 고현학의 시인이 유하이다. 유하의 시적 주체는 ‘압구정동’, ‘경마장’, ‘세운상가’로 상징되는 도시공간의 일상적 풍경에 “동화되는 동시에 그 동화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¹⁴⁾ “압구정동의 중독자”이며 “압구정동의 반성자”¹⁵⁾로서의 양가적인 태도를 지닌 산책자이다. 그는 소비 도시의 물질적 풍요와 욕망의 맹목성에 대한 반성자이자, 도시공간을 장식하고 있는 상품과 패션의 관능적 매혹에 도취된 중독자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유하 시의 산책자 역시 이문재 시의 산책자처럼 도시의 일반적인 생활인이

14) 권성우, 『압구정동의 유하 형제 보내는 서신』, 『비평의 매혹』, 문학과지성사, 1993, 227면.

15) 김 현, 『키치 비판의 의미』, 『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0, 82면.

아니다. 그는 도시가 요구하는 생활의 궤적을 이탈한 자이다. 그런데 유하 시의 산책자는 도시적 이미지와 관능을 훑쳐보는 관음자적 성격이 짙다. 이문재 시의 산책자가 도시공간에 대해 철저한 비판과 의식화된 저항적 태도를 취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면, 유하 시의 산책자는 도시공간의 스펙터클과 관능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관음증적 성격이 짙다. 그는 도시의 근면한 생산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문재의 산책자와 성격을 같이 하지만, 도시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유하의 산책자는 도시의 관능을 적극적으로 탐닉하고 거기에 매혹되는 관음적 시선의 산책자이다. 이 관음적 시선의 동력으로부터 유하 시의 고현학이 발생한다.

걸어가면 만날 수 있다오 오, 욕망과 유혹의 삼투압이여/자, 오관으로 느껴보라,
안락하게 폭 절여진 만화방창 각종 쾌락의 묘지, 체제의 꿈치 통조림 공장,
그 거대한 피스톤이, 톱니바퀴가 검은 기름의 물체를 번득이며 손짓하는 현장을
왕성하게 숨막히게 숨가쁘게/그러나 갈수록 썩시하게/바람이 분다 이곳에
오라(『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2』 중에서)

유하의 시에서 화자는 도시공간에 펼쳐진 상품과 욕망의 풍경, 안락과 풍요, 소유와 소비에 도취되고 매혹당하는 거리의 산책자이다. 그의 시에는 “상품의 황홀한 패션들이 매혹하는 거리, 그 스펙터클에 사로잡혀 있는 군중의 물결, 그리고 그 물결 속에 휩쓸려 걸어가는 어떤 산책자의 시선”¹⁶⁾이 중첩되어 있는데, 이 산책자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관음적이다. 이 관음적 화자는 물질적 풍요와 소비가 보장된 도시공간의 화려하고 “갈수록 썩시”한 거리의 풍경을 훑쳐보며 매혹당하는 인물이다. 화자는 “욕망의 언체인드 멜로디”(『시인 유보씨의 하루 2』)에 몸을 맡긴 채 “욕망과 유혹의 삼투압을” “오관으로 느”끼며 “갈수록 썩시하게” 변화하는 도시의 매혹에 이끌리는 거리의 관음자이다.

유하 시의 산책자로서 화자는 도시공간의 다양한 이미지들, 즉 ‘안락’과 ‘쾌락’과 ‘썩시’함에 도취되고 매혹된다. 그런데 산책자의 이러한 도취와 매혹은

16) 신범순, 『유하의 거리 풍경과 게으른 산책자』, 『글쓰기의 최저낙원』, 문학과지성사, 1993, 291면.

일상적 군중의 모습과 군중을 사로잡는 도시공간에 내포된 권력을 포착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전제한 것이다. 화자는 “육망의 평등사회”, “패션의 사회주의 낙원”, “세속도시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대중의 일원인 동시에 그러한 대중의 도취와 매혹에서 깨어나 도시공간의 부정성을 비판적으로 반성한다. 그는 “글쟁이들과 관능적으로 짝 빠진 무용수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깨달으면서 비판적 국외자로서의 반성적 성격을 획득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하의 산책자는 화려한 물신의 신전을 떠도는 군중들 속의 한 사람인 동시에 물신의 우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반성적 자아이다. 이를테면 유하 시에서 산책자의 시선의 동력은 바로 거리의 관능에 대한 관음적 중독과 비판적 반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비롯한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사과맛 버찌맛/온갖 야리꾸리한 맛, 무쓰 스프레이 웰라폼 향기 훑날리는 거리/웬디스의 소녀들, 부찌끄의 여인들, 카페 상류사회의 문을 나서서/구찌 핸드백을 든 다찌들 오예, 바람 불면 전면적으로 드러나는/저 호벽진 허벅지들이여 시들지 않는 번뇌의 꽃들이여/...중략.../구더기 끓는 절세미녀의 시체, 바람 부는 날이면 펠릭이는 스킵트 밀의/온갖 아름다움을, 심호흡 한번 하고, 부정해보리 내 눈은 윈트겐처럼 번쩍(「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6」 중에서)

유하의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연작은 도시의 고현학에 관한 미학적 정점을 보여준다. 이 연작은 박태원 이후 도시 산책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리를 떠도는 산책자로서 유하의 의식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선 이 시는 풍요롭고 관능적인 도시적 풍경의 스펙터클에 대한 매혹을 드러낸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여성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다. 그의 시에서 여성은 타자화되어 있으며, 그것은 도시에서의 여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 관음자의 일반적 시선을 대변한다. 특히 여성을 상품과 소비와 육망이라는 매개와 연관시키는 발상이 특징적이다. 그런 점에서 거리의 여성에 대한 유하 시의 관음증적 시선은 독특한 지형을 이루는 것이다.

거리 산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펙터클을 구성하는 세목들은 소비사회

의 물질적 기호들과 관능적인 상품의 이미지와 물신 욕망의 현란한 풍경이다. 매혹당하는 시선의 핵심에는 “호벽진 허벽지들”과 “황홀한 종아리” “스커트 밑의/온갖 아름다움”이 부각되어 있다. 이는 거리의 관음증적 시선으로 남성 관음자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의 파편화되고 물신화된 몸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화자는 그 이미지들에 대한 매혹과 함께 그 매혹을 반성하고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화자는 결국 “구더기 끓는 시체”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서 어릴 적 “원두막지기의 딸” “단발머리 소녀”의 “그 눈부시던 종아리”의 건강성을 상상한다. 화자의 부정에 의해 거리의 관음증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산책자의 관음적 시선은 반성적 시선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시선의 전환을 통해 유하 시의 산책자는 매혹을 넘어서 주체성의 적극적 표출을 통해 자본주의적 문명의 욕망과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함유하게 된다. 유하 시의 산책자는 도시의 군중과 휩쓸리면서 동시에 ‘글쟁이’로서 거리의 스펙터클과 관능적 매혹으로부터 반성적 거리를 취한다. 이 지점이 유하 시의 도시 산책자의 윤리가 발견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관음적 시선의 대상으로서 군중을 파악하는 시선은 거리의 스펙터클한 풍경과 매혹적인 상품의 기호 이미지로부터 반성적이며 비판적인 시선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윤리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의 매혹에 중독된 산책자의 관음적 시선은 그 안에서 대안을 꿈꾸는 탈주의 성찰적 시선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이 유하의 산책자가 거리에서 보여주는 시선의 동력이다. 이러한 시선은 “대중의 참다운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며, 동시에 대중을 사로잡는 일상에 있어서 권력을 붙잡아내는 것”¹⁷⁾이라는 의미에서 유하 시의 고현학은 ‘현대성의 무의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감독은 얼씨구나 양과 껌질처럼 끝없이 웃을 벗기기 시작하는데, 그녀만 보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코카콜라를/삼성 에이 에프 오토 줌 카메라를, 해태 화인슈 시곗줄을 사고 싶어지는 내 눈알, 나는 본다 저 알몸 위로 오버랩되는……/온산을 갈아엎는 사람들을 세상을 온통 콜라빛 페수로 넘실대게 하는 사람들을 이 땅을 온갖 욕망의 구매력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을(『콜라 속의 연꽃, 심해

17) 신범순, 앞의 글, 291면.

인용 시의 화자는 도시의 거리를 관음적 시선으로 훑쳐보며 물신의 유희과 온갖 상품의 관능적 쾌락 앞에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반응하는 동시에 그 매혹과 도취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양가적인 산책자로 등장한다.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현대적 도시공간을 산책하는 화자는 시대가 즐기는 것들 앞에서 “난 전율한다”고 외친다. 산책자는 압구정동에 펼쳐진 황홀한 관능과 소비사회의 풍요에 매혹당하면서도 동시에 고통과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 반응에는 ‘압구정동’이라는 도시공간과 그 안에서 생성되는 문화적 풍속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반성적 지각이 도사리고 있다. 이를테면 매혹과 반성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공간 ‘압구정동’에서 “온 산을 같이엮”고 “세상을 온통 콜라빛 페수로 넘실대게 하”며, “이 땅을 온갖 욕망의 구매력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의 욕망의 확대 재생산을 관음적 시선을 통해 표상해낸다. 그럼으로써 화자는 그 안에 흐르는 미시권력의 작동을 엿본다.

물신이 지배하는 도시의 거리 풍경을 관음적으로 소비하면서 그것의 숨은 정치성을 캐묻는 화자가 유하의 산책자이다. 도시 산책자 유하의 시선의 고현학은 거리의 일반적인 군중의 위치에서 도시의 내부를 관음적으로 사유하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미시권력의 작동을 엿보는 비판적 성찰의 정치학에 접근한다. 이 산책자는 도시의 물질적 풍요와 패션, 기호의 풍요로움과 현란함에 갖든 욕망의 확대 재생산과 미시권력의 작동을 바라보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3』) 되뇌면서 ‘느림과 비움’의 문화를 사유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시적 사유는 도시 내부자의 관음적 시선으로부터 도시의 풍속과 아비투스(habitus)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시선에 이르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산책가는 누구를 추월하지 않는다/그러므로 나는 추억보다 느리게 간다/나를 무수히 추월해 간 지상의 탈것들이여/어쩌면 목적지란 시간의 종말 아닌가/나의 시간은 무한한 곡선/은륜의 텅 빈 내부로 물이 고이듯 시간이 머문다/셋길의 시간은 무익하여,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나는 그 무익의 시간을 벗 삼아/유한한 삶에 대한 명상을 충분히 할 것이다/산책가는 늘 길 위편에 남아 있다(『

나는 추억보다 느리게 간다-자전거의 노래를 들어라」중에서)

인용 시는 자본주의적 문명의 속도를 거스르는 산책의 미덕이 갖는 의미를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 “산책가는 누구를 추월하지도 않”으며, “추억보다도 느리게” 걷는다. 도시문명의 속도에 저항하는 “아웃사이더”로서 산책자는 빠르게 “추월해 간 탈것들”에서 종말의 징후, 즉 “시간의 종말”을 예견한다. 모든 것을 빠르게 추월해가는 자본주의의 직선적 시간은 빠른 만큼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그러한 직선적 시간관에 의하면 “은륜의 텅 빈 내부로 물이 고이듯 머”무는 “삿길의 시간은 무익”한 것이어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산책자는 문명의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무한한 곡선”의 길, “그 무익한 시간을 벗 삼아” “유한한 삶에 대한 명상을 충분히 할 것”을 권한다. 화자는 종말의 시간으로 치달는 자본주의적 문명과 “유한한 삶”에서 “생의 시간을 길게 확장시키”는 방법은 “무한한 곡선”의 시간이 갖는 느낌의 미학, “은륜의 텅 빈 내부”라는 비움의 윤리를 지향하는 것이다.

유하의 시에서 산책자의 반성적 성찰은 이문재 시에서와 같이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 지금 여기를 지배하는 현실원칙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지점으로의 탈주를 꿈꾸게 한다. 유하의 시에서 그 탈주의 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도시공간과 대척되는 곳에 위치한 ‘하나대’로 상징되는 원초적 공간이다. 그곳은 “깨벗은 나뭇가지 위 붉은 까치밥 하나 홀로 어두워”가는 곳으로서 “모든 것들을 오래오래 길러온 어머니”(『정글어가는 하나대를 바라보며』)의 모성이 자리하는 원초적 질서와 생명의 공간이다. 그곳은 곡선이라는 느낌의 시간과 텅 빈 중심이라는 비움의 철학이 가능한 곳이다. 말하자면 ‘하나대’로 상징되는 원초적인 질서의 공간은 도시공간과 대비되는 반성적 사유의 윤리적 거점을 이룬다.

거리의 산책자인 화자는 번잡한 도시에서 ‘하나대’라는 상상적 공간으로 시선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그럼으로써 채움의 욕망과 속도 지향의 문화적 풍속에 대해 비움과 느낌의 가치를 내세운다. 이를테면 비움과 느낌은 도시 거리의 풍경에 대한 관음적 매혹과 소비를 통과한 지점에서 원초적 생명의 발견은 도시 고현학이 도달한 최종의 윤리적 지점인 것이다. 이는 시인 스스로 밝

히고 있듯이 “목적론적 인식이 지구의 허虛를 거의 메워버린 지금, 칼 루이스의 스피드가 아니라, 빈 곳을 그대로 두자는 노자老子적 게으름”과 “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절멸의 자리”이며 “건강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라, 터미네이터의 관능과 파괴성이 도사린” 세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쉼의 문화”¹⁸⁾를 역설하는 부분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때 ‘쉼의 문화’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거부하고 “날다람쥐처럼 움직이”며 “좀처럼 늙질 않는”(『老子가 진지를 권할 때』) ‘채움의 욕망’이 아닌 “텅 빈 중심”(『무의 폐달을 밟으며』)이라는 건강한 욕망으로서의 생명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유하의 산책자가 도시공간의 대척점에 ‘하나대’라는 원형적 공간을 구축한 것은 탈주와 초월이라는 이탈의 욕망인 동시에 도시문명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하나대’로 상징되는 원초적이며 신성한 질서의 공간은 도시공간과 대비되는 반성적 사유의 거점으로서 타락한 자본주의적 도시문명과 욕망의 논리에 제동을 거는 상징적인 시적 장치이다. 따라서 ‘압구정동’이나 ‘경마장’과 변별되는 ‘하나대’라는 원초적 공간은 그의 시를 자본주의적 도시문명에 대한 반성적 사유의 지평에서 이해하도록 기능한다. 이것은 원초적 공간이 갖는 모성의 세계로 돌아가 문명이 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욕망의 윤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4. 신성의 부재와 종교적 영성의 시선 : 고진하

고진하 시인에게 도시는 신성이 부재하는 절멸의 목시록적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¹⁹⁾ 그의 시에서 도시적 풍경과 그 세부를 탐색하는 산책자는 도시 공간 속에서 자신의 시선의 위치를 변두리적이고 외부적인 이방인으로 설정한다. 도시의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 스스로를 도시의 주변부에 위치시키고, 그럼으로써 도시 내부의 심층을 응시하는 시선의 체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도시의 변두리적 시선은 도시가 아닌 도시 밖에서 새로운 생명과 신성의 윤리를 찾아내는 발견의 시선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시선의 동력을 가능하게 하

18) 유하, 『왜 바람부는 날에 압구정동에 가는가』, 『현대시학』, 1991.6, 93면.

19) 김홍진, 『신성회복의 종교적 상상력-고진하론』, 『풍경의 감각』, 푸른사상, 2012, 112면 참조.

는 중요한 계기는 시인이 도시적 삶의 식민성을 비판하면서 도시 밖으로부터, 즉 도시와 문명의 논리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성(靈性)으로부터 생명의 가능성을 사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시적 표상에 대해 비판적 관찰과 조감(鳥瞰)의 시선으로부터 종교적 영성이라는 내재적 시선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고진하의 시에서 시선의 동력은 역시 도시의 거리에서 발생한다. 이문재의 산책자가 거리의 풍경을 관찰하면서 비판하는 의식화된 시선을 유지하고, 유희의 산책자의 시선이 다분히 관음적이지만 반성적 태도를 보인다면, 고진하의 산책자는 같은 관찰자이지만 종교적 영성의 시선이 내재해 있다. 고진하 역시 도시의 풍경을 자신의 시각적 프레임 안에 가두지 않고 그 풍경의 바깥에서 존재의 가능성을 찾는다. 그런 점에서 이문재가 도시와 문명 밖에서 원형적 삶과 생명을 본 것이나, 유희가 도시와 문명의 밖에 위치한 ‘하나대’라는 원형적 생명과 삶의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려는 태도와 유사하다. 고진하에게 지금 이곳의 삶과 질서는 신성이 부재하는 묵시록적 현실이며, 따라서 부정의 대상이다. 도시를 부정적이며 비판적으로 관찰하는 고진하의 산책자는 묵시록적 도시문명의 타락한 현실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방법을 종교적 영성의 회복과 확장에서 찾는다.²⁰⁾ 고진하는 도시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도시 밖에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응시하는 영성적 시선의 윤리학을 보여준다.

오랜만의 내 산책길 끝에/비단뽕의 살결 같은/실개천 한 폭을 펼쳐놓는다./꿈
틀거리는 저것이/폐유가 빚어낸 무늬일망정/곱다./정말 곱다./키 작은 봄풀들
을 품고 스르르 기어가는/비단뽕 무리, 잠시 동안이지만/ 작은 고마운 것./환각
속이라고 왜 삶이 없겠는가./...중략.../그 순간, 2,500볼트에 실린 高壓의 시간
이/창백한 얼굴들을 차창에 매달고/쏟살같이 흘러간다./내 앞에 가로놓인 어두
운 심연을 가로질러(『高壓의 시간』 중에서)

고진하의 시는 근대가 파생한 자본의 물신과 문명의 욕망이 초래한 생명의 위기, 분열과 소외의 부조리한 모순적 상황을 부정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시는 ‘빈들’로 상징되는

20) 김문주, 『느림의 문화와 기독교 영성』, 『어문논집』 56집, 민족어문학회, 2007. 10 참조.

암울한 농촌 현실에 주목하다가 도시 체험으로 확대된다. 이러한 경험 세계의 변화는 시인에게 새로운 응전을 요구하는데, 그가 채택한 것이 산책의 모티프이다. 그의 시에서 도시는 “비단뻐의 살결”처럼 외피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高壓의 시간이/창백한 얼굴을 차창에 매달고/쏟살같이 흘러”가는 목시록적 상황으로 표상된다. 도시는 시인에게 “악취 풍기는 폐수와 썩지 않는 쓰레기 더미 위로 / 무성하게 피어난 인공 독버섯이 뒤덮인 땅”(「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이거나 “치매에 걸린 세상 / 죽음도 붕괴도 잊고 멈추지 못하는 기관차처럼 / 죽음의 속도로” “미친 듯이 달려가”(「어머니의 총기」) 등이 목시록적이고 그로테스크하게 표상된다.

흥미로운 점은 고진하의 산책자 역시 이러한 도시의 풍경에 대해 이중적인 시선과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인용 시에서 산책길의 화자는 폐유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에 도취하고 감탄한다. 그것은 비단뻐의 무늬처럼 “정말 곱”고 매혹적이다. 이처럼 화자는 문명이 배태한 폐유의 아름다움에 도취된다. 그 아름다움에 유혹당해 그 아름다움을 긍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화자는 “비단뻐의 살결 같은” 아름다움이 ‘실개천의 폐유’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러한 각성을 통해 환각의 무서운 정체가 죽음, 즉 폐유의 아름다움이란 질주하는 죽음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는다. 도시적 삶과 문명의 얼굴이 쉽게 부정할 수 없는 매혹적인 모습이라는 사실과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지점에서 그의 시선의 윤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문명의 아름다움과 매혹이 사실은 폐유의 순간적인 아름다운 ‘오색무늬’, 혹은 “방부제 따위를 가득 채운” 박제된 새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환각이라는 사실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지점에서 고진하 시의 산책의 윤리는 발생한다. “마취의 문명”에 의해 “잘 길들여진 행복”(「겹질만으로도 눈부시다, 후투티」)이라는 환각으로부터 각성하는 지점에서 도시적 시선의 동력이 도시 산책자의 윤리를 발견하는 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악스레 機心を 품고 살던/나는 문득 저 검붉게 변색되어가는 나무들에서/눈길을 땔 수 없다 색맹의 눈알을 껌벽이며 회전을 멈춘/이 도시의 해와 달처럼 그 어디, 지향처가/보이지 않는다 물과 산에 깃들인 德을 버리고/안팎으로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물결을 따라 / ...중략.../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황색의

차선에 이미 들어선/나는, 썩썩 검은 死神의 위세에 맞물려 돌아가는/작디작은
툭니바퀴가 되어 구르고/잠시 풀어본 나무의 마음엔 목마른 툭밥만 가득 내려
쏟이고.(「나무와 기계의 마음」 중에서)

인용 시에서 산책자의 시선은 “천지사방 눈 씻고 보아도 흙 한줌 안 보이는 /색유리와 시멘트의 도시/거대한 빌딩 반질거리는 대리석 바닥에/移植되어
있”는 나무를 보고 있다. 이런 그의 시선이 포착한 풍경의 세목은 “소용돌이
치는 욕망의 물결”이거나 “검은 死神의 위세”와 같은 것들이다. 그런 화자의
의식은 차라리 은둔하고자 하는 생각을 풀어보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그 누
구도 벗어날 수 없는 황색의 차선에 이미 들어”서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런데 이 시에서 주목할 점은 나무와 기계의 마음을 병치시
켜 놓고 대조한다는 사실이다. 기계의 마음이란 욕망과 죽음이 질주하는 ‘그
악스런’ 마음이다. 반면 나무로 표상된 이 시대의 자연은 인간의 폭력과 욕망
에 제자리를 잃고 “색유리와 시멘트의 도시”로 이식되어 “검붉게 변색”되는
죽음의 시간을 맞고 있다. 이처럼 산책자의 시선이 포착한 도시는 욕망이 불
러올 재앙의 묵시록적 공간으로 표상되며, 흙으로 표상할 수 있는 대지의 상
실을 바탕으로 세워진 문명은 ‘死神’의 얼굴로 표상되고 있다.

고진하의 산책자 역시 도시 내부에 존재하면서 스스로를 도시의 중심에서
이탈한 주변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도시의 밖에서 새로운 사랑과 생명의 윤리
를 찾아내는 발견의 시선으로 움직인다. 말하자면 도시에서 “검붉게 변색”되
는 죽음의 시간을 조감(鳥瞰)하는 시선으로부터 ‘나무’가 지닌 본래적 생명을
감각하는 내재적인 위치에 도달한다. 신성부재의 현실을 응시하는 외부자적
이고 냉소적인 시선에서 사물에 편재하는 본래적 신성을 감각하는 영성적 시
선의 위치로 자신의 시적 응시의 관점을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시 외부
자의 관찰자적 시선으로부터 사물에 편재하는 신성의 발견이라는 내재적인
성찰의 시선에 이르는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시선의 동력과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산책자가 도시의 부정성을 비판하면서 그로부터 신성 회
복의 가능성을 사유하기 때문이다. 그의 산책자 역시 도시적 일상을 비판적으
로 받아들이면서 도시의 풍경을 시적 주체의 시각적 프레임 안에 가두지 않
고, 그 신성부재라는 풍경의 바깥에 있는 존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그 존

재의 가능성이 도달한 궁극적인 지점이 바로 종교적 영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가능성이 신성의 회복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침마다 산을 오르내리는 나의/산책은/산이라는 책을 읽는 일이다./…중략…/그런데, 오늘, 숲으로 막 꺾어들기 직전/구불구불한 길 위에/꽃무늬 살가죽이 툭, 터진/꽃뱀 한 마리 길게 늘어 붙어 있다./ (오늘은 꽃뱀부터 읽어야겠군!)/ 짝 깔린 등과 꼬리에는/타이어 문양/불꽃 같은 혀바다의 찌꺼기 밀려나와 있는 머리는/해 뜨는 동쪽을 베고 누워 있다./…중략…/눈먼/사나운 문명의 바퀴들이 으깨어버린/사신(蛇神)/신이여,/이제 그대가 갈 곳은/그대의 어미 대지밖에 없겠다.(『꽃뱀 화석』 중에서)

화자는 자신의 산책길을 “산이라는 책을 읽는 일”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일종의 언어유희이지만, 자연에 미만해 있는 못 존재 형식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불러오는 언어감각이다. 이 “색 다른 독서 경험”에서 화자는 뱀의 등과 꼬리에 있는 “타이어 문양”을 본다. 화자는 잔혹하게 뱀을 밟고 간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을 통해 “산이라는 책”에 담겨 있는 문명의 날카로운 틈 입을 바라본다. 화자는 “사나운 문명의 바퀴들이 으깨어버린 사신(蛇神)”을 통해 그 문명의 폭력성을 환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화자가 뱀을 시원의 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문명의 바퀴에 희생당한 뱀의 시신을 두고 “사신이여,/이제 그대가 갈 곳은/그대의 어미 대지밖에 없겠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어미인 대지만이 생명과 신성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모태의 생명성을 사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서히 풍화되어가는 뱀의 시신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원형이 되는 것이며, 고진하의 도시 산책자가 궁극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윤리적 지점인 것이다.

말발굽 같은 유혹과 끈끈한 욕망이 물결치는/홍등가에서 흘러나오는 현란한 불빛/저 불빛은/헐떡거리는 짐승의 시간, 마취의 시간을 가리킨다/온갖 괴로움의 시간은 끝났다 아직도/혹 전갈에 쏘인 사람들처럼 부질없는 괴로움에/붙은 혀를 깨무는 사람들은/황홀하게 멈춰 선 지상의 마지막 시계탑을, 어둠 속에서/더욱 눈부시게 빛나는 저 하얀 소금 기둥들을 바라보라 지금이/바로 구원의

시간이요 짜, 짜릿한/해탈의 시간이다!(『소금기둥』 중에서)

고진하의 시적 주체는 “황폐한 현실에서 신의 목소리를 듣는 강력한 종교적 주체이다.”²¹⁾ 이는 단지 시인이 개신교 목사라는 신분에서 비롯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적 개인이 도시적 시공간에 대해 보여주는 시선의 움직임에 종교적 영성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시에서 영성적 시선은 그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미학적 지점을 이룬다. 현실의 구원이 현실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감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처럼, 고진하는 부재하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의 도처에 “편재하는 모든 신성의 존재를 발견하고 만나며,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²²⁾하려고 한다. 이러한 소통의 자세는 “사물의 형상이나 속성과 교감하는 태도”²³⁾로서 “말발굽 같은 유혹과 끈끈한 욕망이 물결치는” 부정적 현실을 끌어안고 감수하면서 그러한 부정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정신적 자세를 말한다. 타락한 삶의 양식과 욕망에 대한 고진하의 도시적 시선이 지닌 부정의 변증법은 “침승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인식하듯이 희망에 대한 성찰을 전유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고진하의 시에서 신성은 만물에 편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聖所』에서와 같이 세상 만물이 곧 신전이며 성소이다. 이러한 신성의 편재성은 만물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학적 사유로 확대되는 것이다. 종말이 임박한 묵시록적 상황의 도시문명에서 고진하의 산책자는 그 속에 남아 있는 “청정한 우주생명”(『낙타무릎의 사랑』의 신성을 발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힘으로” “신생의 꿈”(『흰줄표범나비, 죽음을 받아들이는 힘으로』)을 꾸며, “늙은 어머니의 자궁이 부욱, 찢어”지는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이 퍼져나가는 “사랑의 빅뱅”(『봉숭아 씨앗』)을 감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 부재의 묵시록적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만물에 편재하는 신성과 사랑과 생명을 발견하는 영성적 시선의 윤리학으로 극적인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21) 김홍진, 앞의 글, 120면.

22) 유성호, 『신이 부재한 시대의 ‘신성’ 발견』, 『유심』7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1, 겨울, 316면.

23) 이경호, 『견성(見性)의 시학』, 고진하, 『프란체스코의 새들』해설, 민음사, 96면.

세계의 도처에 편재하는 신성을 지향하고 발견하며 일상의 성소화(聖所化)를 추구하는 고진하의 시 정신은 그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계속하여 의식하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인지 그의 초기 시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의 시에는 ‘빈들’이나 ‘골짜기’, ‘골고다’와 같은 성서적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곳은 죽음과 상실, 시련과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활과 재생의 장소이기도 하다. 신성의 편재성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성소이며 세상의 만물이 신전이라는 의미가 된다. 성소란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고진하의 시에서는 신의 편재성으로 말미암아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물과 삶의 공간이 곧 신성이 발현하는 성소이다. 고진하의 시는 종교적 영성의 세계를 새롭게 확장해 나감으로써 물신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타락한 욕망에서 비롯한 생명의 위기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시선의 윤리학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현실에 대한 부정과 비판, 그리고 희망에의 성찰이라는 틀은 고진하 시를 규율하는 주요한 인식론적 틀이다. 이것은 마치 예술은 세계의 모든 어둠과 죄를 자신의 내부에서 떠맡으면서 부정적 경험세계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없이 말한다²⁴⁾는 아도르노의 전언과 유사한 문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고진하의 시적 주체인 산책자는 부정적 현실을 고통스런 시선으로 응시하면서 역설적으로 그 내부에서 사랑과 생명의 윤리를 찾아내는 발견의 시선으로 이동한다. 그의 시에서 산책자의 영성적 시선의 윤리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반성적 성찰을 의미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 항체를 형성하는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의 윤리는 도시적 현실의 내부에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응시하고 전유한다는 점에서 자크 랑시에르가 말하는 ‘감각의 정치학’²⁵⁾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5. 맺음말

물신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공간은 사회적 공간, 즉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24) T.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4, 363-368면 참조.

25)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11면 참조.

공간인 동시에 미적 공간이기도 하다. 미적 공간으로서 도시를 일종의 표상체계로 본다면 중요한 것은 도시를 구축하는 시선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고는 이문재·유하·고진하의 시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고현학과 시선 표상이 지닌 정치성과 윤리성의 일부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세 시인의 화자는 공히 도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시선의 위치를 변두리적이고 외부적인 국외자로 설정한다. 세 시인의 시에서 화자인 산책자는 도시의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 스스로를 도시의 외부에 위치시키고, 도시의 내부에서 도시의 외부를 상상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체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시선 체계가 문제적인 것은 도시 산책자의 감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며, 그것은 현대시가 보여주는 정치성과 윤리성의 의미 있는 한 국면을 이루는 것이다.

이문재 시는 문명의 속도와 ‘제국’에 대한 저항적 시선의 정치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시적 담화의 구축은 도시화·문명화된 현재적 삶에 대한 반성과 미래 문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의 시는 인류 문명이 지향해야 할 미래적 전망과 잃어버린 삶의 호흡을 느끼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문명과 인간, 도시와 생태적 환경이 보다 나은 관계를 모색하는 반성적 토대를 마련해준다. 타락한 생태현실과 그 기저에 도사리고 있는 탈근대의 논리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동일성의 회복에서 산책자의 투사와 대항적 시선은 문명에 대한 대안 명제의 윤리학으로 읽힐 수 있다.

유하의 산책자는 욕망의 풍경을 적나라하게 수용하는 관음적 시선과 스펙터클의 도시 풍경을 특유의 고현학적 태도를 통해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성과 윤리성을 보여준다. 유하의 도시 산책자는 현란한 기호가치와 상징가치에 매혹당하면서 도시를 지배하는 현실원칙과 질서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 산책자로서 유하는 도시를 지배하는 물질적 풍요와 기호가치의 매혹적인 현란함에 내재한 욕망과 미시권력의 작동을 엿보고, 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느낌과 비움의 미덕을 강조한다. 이것이 유하의 산책자가 거리에서 보여주는 시선의 동력이며 윤리학이다.

고진하의 산책자는 묵시록적 현실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역설적으로 희망을 갖는 종교적 영성의 주체이다. 그의 시에서 산책자의 영성적 시선의 윤리

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반성적 성찰을 의미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적 항체를 형성하는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즉 신성 부재의 현실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회복은 영성적 시선이 도달한 윤리성의 최종 지점이다. 이것은 부정적 경험세계로부터 희망의 세계로 나가려는 탈주의 상상력으로서 근대적 질서와 문명, 물신의 타락한 욕망과 풍속, 생명의 위기에 대한 반성적 자각이며 저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정신의 핵심을 관통하는 종교적 영성의 시선은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대안명제라는 시선의 윤리학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의 산책자는 도시문명의 논리에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저항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도시의 산책은 그곳으로부터 탈주하거나 본래적 삶을 회복하려는 정신적 고투의 산물이다. 도시의 속도와 논리에 저항하는 게으른 산책은 도시적 일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미시적 관찰과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도시의 산책은 물질과 기호의 현란함에 내재한 욕망과 미시권력의 작동을 엿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탈주를 꿈꾸게 한다. 탈주는 일견 현실과 다른 곳으로의 이탈 욕망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도시적 일상에 깃든 ‘현대성의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성찰의 층위이다. 요컨대 세 시인이 보여주는 정밀한 관찰과 비판적 통찰, 깨어 있는 산책자의 시선의 고현학과 시선 표상의 윤리성 및 정치성은 현대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이문재,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민음사, 1988
_____, 『산책시편』, 민음사, 1993.
_____, 『마음의 오지』, 문학동네, 1999.
_____, 『제국호텔』, 문학동네, 2004.
유 하,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문학과지성사, 1991.
_____, 『세운상가 키드의 생애』, 문학과지성사, 1995.
_____, 『천일馬화』, 문학과지성사, 2000.
고진하,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 민음사, 1990.
_____, 『프란체스코의 새들』, 문학과지성사, 1993.
_____, 『우주배꼽』, 세계사, 1997.
_____, 『얼음수도원』, 민음사, 2001.
_____, 『수탉』, 민음사, 2005.

2. 논저

- 권성우, 「압구정동의 유하 형제 보내는 서신」, 『비평의 매혹』, 문학과지성사, 1993.
김문주, 「느림의 문화와 기독교 영성」, 『어문논집』 56집, 민족어문학회, 2007. 10.
김 현, 「키치 비판의 의미」, 『말들의 풍경』, 문학과지성사, 1990.
김홍진, 「탈근대 문명과 산책자의 대항적 사유」, 『현대시와 도시체험의 미적 근대성』, 푸른사상, 2009.
_____, 「신성회복의 종교적 상상력」, 『풍경의 감각』, 푸른사상, 2012.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1983.
신범순, 「유하의 거리 풍경과 게으른 산책가」, 『글쓰기의 최저 낙원』, 문학과지성사, 1993.
이경호, 「견성(見性)의 시학」, 고진하, 『프란체스코의 새들』해설, 민음사,

96면.

이광호, 『시선과 관음증의 정치학』, 『이토록 사소한 정치성』, 문학과지성사, 2006.

이광호, 『세속 세계의 산책』, 『환멸의 신화』, 민음사, 1995.

이광호, 『김수영 시에 나타난 도시적 시선의 문제』, 『어문논집』제60집, 민족어문학회, 2009. 10.

이문재, 『시인이 쓰는 시 이야기-미래와의 불화』, 『마음의 오지』 후기, 문학동네, 1999.

유성호, 『신이 부재한 시대의 ‘신성’ 발견』, 『유심』7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1, 겨울.

유하, 『왜 바람부는 날에 압구정동에 가는가』, 『현대시학』, 1991.6.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하권, 국학자료원, 2006.

H. 마르쿠제, 『일차원적 인간』, 한마음사, 2006..

J. Ranciere,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M. 푸코, 『계몽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R. 아른하임,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대출판부, 1982.

T. W.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4.

【국문초록】

본고는 이문재·유하·고진하의 시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고현학과 시선 표상이 지닌 정치성과 윤리성을 조명하였다. 세 시인의 시에서 화자인 산책자는 도시의 내부에 속해 있으면서 스스로를 도시의 외부에 위치시키고, 도시의 내부에서 도시의 외부를 상상적으로 응시하는 시선의 체계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시선 체계는 도시 산책자의 감각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그것은 현대시가 보여주는 정치성과 윤리성의 의미 있는 한 국면을 이룬다.

이문재 시의 산책자는 도시문명의 파시스트적 속도에 역행하는 느낌의 미덕을 통해 제국과 문명의 속도에 저항한다. 이문재 시에서 산책자의 투수와 대항적 시선은 문명에 대한 대안 명제의 윤리학으로 읽힐 수 있다. 유하의 시는 욕망의 풍경을 적나라하게 수용하는 관음적 시선과 스펙터클의 도시적 풍속을 특유의 고현학적 태도를 통해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정치성과 윤리성을 획득한다. 산책자로서 유하는 도시를 지배하는 물질적 풍요와 기호가치의 매혹적인 현란함에 내재한 욕망과 미시권력의 작동을 엿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느낌과 비움의 미덕을 강조한다. 이것이 유하의 시적 자아인 산책자가 거리에서 보여주는 시선의 동력이며 윤리학이다. 고진하의 산책자는 목시록적 현실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역설적으로 희망을 갖는 종교적 영성의 주체이다. 즉 신성 부재의 현실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사랑과 생명의 회복은 영성적 시선이 도달한 윤리성의 최종 지점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정신의 핵심을 관통하는 종교적 영성의 시선은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대안명제라는 시선의 윤리학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시의 산책은 물질과 기호의 현란함에 내재한 욕망과 미시 권력의 작동을 엿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탈주를 꿈꾸게 한다. 탈주는 일견 현실과 다른 곳으로의 이탈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도시적 일상에 갇든 ‘현대성의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성찰이라는 윤리성과 정치성의 층위이다. 즉 세 시인이 보여주는 정밀한 관찰과 비판적 통찰, 자유롭고 깨어 있는 산책자의 시선의 고현학과 시선 표상의 윤리성 및 정치성은 현대성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주제어 : 시선, 표상, 도시적 시선, 산책자, 정치성, 윤리성, 고현학, 시선의
윤리

【Abstracts】

The Urban Flaneur & Meaningful Representation of the Eye

— Focusing on the poetry of Lee Munjae, Yu Ha, Ko Jinha —

Kim, hongjin

This article was lit up with the politics and ethics of representation modernology and gaze on the city at the time of Lee Munjae, Yu Ha, Ko Jinha poetry. In their poetry Flaneur is to position themselves in the city outside while the inside part of the city. Thereby, they create a system of eye staring at the outside of the cities in the interior of the city as imaginary.

The Flaneur Lee Munjae poetry of resistance to the speed of civilization through the virtue of slowness, which goes against the fascist rate of urban civilization. Perspective and against enemies in the eyes of the flaneur of Lee Munjae poetry can be read as an alternative proposition for the ethics of civilization. Yu Ha poem to obtain a political and ethical to recognize the voyeuristic gaze and urban wind speed ever spectacular scenery of spying sexual desire in half through the modernology attitude. Urban gaze stayed as Flaneur is spying operation of desire and micro-power of the distance, it emphasizes the virtues of slowness and emptiness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Flaneur of Ko jinha is the subject of religious spirituality with the apocalyptic hopes suffered a paradoxical reality. That reflection on the

reality of the Holy member, and the restoration of love and life is the final point of the line of sight of spirituality reached ethics. So the eyes of religious spirituality through his divine core shows the ethics of corrective eye to present a critical alternative proposition for the modern society.

Walking glimpse of the city's desire to work with micro power inherent in the material and symbolic, critical to recognize it and dream of escape. Point to note here is the horizon of the ethics and politics of recognition and reflection of the 'unconscious of modernity' dwelling in urban life. That is ethics and politics of the gaze modernology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three poets to show insight and critical observation, free and sober Flaneur is to include the specific recognition of modernity.

Key words: eye, representation, urban eye, flaneur, politics, ethics, modernology, ethics of eye.

이 논문은 2014년 12월 2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